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일련번호 : 23-02

발 간 일 : 2023.3.27.

보 고 자 : 베이징무역관 문은혜, 김성애

2022년 중국 對美 수출입 분석

- ◆ (교역총액) 2022년 국내외 다중악재 속에서도 중국의 對美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중 교역규모도 2년 연속 최고치 경신
- ◆ (對美수출) 기계설비, 가구 등 품목 수출이 감소했으나 전기기기, 의류, 신발 등 품목의 對美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對美 수출 감소세 방어
- ◆ (對美수입) 전기기기, 기계설비, 자동차 수입이 감소한 반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유기화학제품 수입 호조세
- ◆ (특이동향) 중국의 전통 강세 품목인 기계설비·부품의 對美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對中 견제 심화로 對美 배터리 수출, 반도체 및 제조설비 수입도 감소세. 한편, 석유화학 분야의 對美 수입은 증가 양상

※ 본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입 통계에 기반해 중국의 對美 수출입 동향을 분석함

1. 2022년 미중 교역

□ 2022년 미중 교역총액 역대 최고치 기록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2년 미중 교역총액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7,592억 달러
 - * 미 상무부 통계: 미중교역 6,905억 달러, 이중 對中 수입 5,367억 달러
 - 2022년 중국의 對美 수출이 5,8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고 對美 수입은 1,795억 달러로 1% 감소
 - 중국의 對美 수출이 2021년에 이어 또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며 미중 교역규모도 2년 연속 최고치 기록

<중국의 對美 수출입 동향>



자료 : Global Trade Atlas

□ 농산품, 일반 소비재, 석유화학제품 중심의 수출입 증가

- 중국산 의류/신발, 완구 등 품목의 對美 수출이 증가하였고 중국의 對美 농산품 수입도 안정세를 유지하며 미중 수출입 감소세를 방어
 - 2022년 중국의 對美 의류, 신발, 완구 수출은 각각 5.1%, 9.2%, 0.2% 증가
 -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수, 사료용 식물 등 농산품 수입은 두자릿수 성장세
 - 지난해 중국의 對美 석유제품, 화학제품 수입 역시 높은 신장세

2. 중국의 對美 수출

□ 전기·소비재 미국향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對美 수출 감소세를 방어

- 2022년 중국의 對美 수출 10대 품목 중 1위 품목(전체 對美 수출 비중 24.5%)인 전기기기가 전년 대비 5.8% 증가하며 對美 수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침
 - 지난해 對美 수출규모가 가장 큰 전기기기는 스마트폰(HS 851713)으로 수출액은 419억 5,170만 달러에 달함
 - * 스마트폰 HS 851713는 2022년 신규 조정된 HS 코드로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중국 對美 수출 10대 품목(HS 2단위)>

순위	품목	對美 수출(백만 달러)			전체 對美 수출에서의 비중 %			증감률 ('22/'21)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對美 수출	452,079	576,604	581,565	100.0	100.0	100.0	0.9
1	전기기기 및 부품	111,659	134,750	142,573	24.7	23.4	24.5	5.8
2	기계설비 및 부품	95,191	114,074	109,558	21.1	19.8	18.8	△4.0
3	완구 및 부품	23,319	37,123	37,185	5.2	6.4	6.4	0.2
4	가구/침구	29,483	39,281	34,587	6.5	6.8	5.9	△12.0
5	플라스틱	21,807	28,026	27,337	4.8	4.9	4.7	△2.5
6	의류 및 부속품 (메리야스)	14,158	21,664	21,594	3.1	3.8	3.7	△0.3
7	자동차 및 부품	14,020	19,101	19,663	3.1	3.3	3.4	2.9
8	철강제품	11,069	16,255	16,014	2.4	2.8	2.8	△1.5
9	의류 및 부속품 (메리야스 제외)	11,211	13,108	14,954	2.5	2.3	2.6	14.1
10	신발	7,752	12,132	13,249	1.7	2.1	2.3	9.2

자료 : Global Trade Atlas

- 미국은 중국 의류 수출의 21.8%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의류 수출대상국으로 2022년 중국의 對美 의류*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365억 달러
- * 메리야스 의류(HS 61)과 기타 의류(HS 62)를 합산한 결과

- 2022년 중국의 미국향 신발 수출은 9.2% 증가한 132억 달러로 집계됨
 - 코로나19 첫 발발한 2020년의 2배에 가까우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115억 달러)이나 미중 상호관세 부과 전인 2017년(120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

□ 기계설비, 가구, 플라스틱 등 품목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 2022년 중국의 對美 수출 2위 품목(전체 對美 수출 비중 18.8%)인 기계설비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4% 감소
 - 자동데이터처리기계(노트북), PC 부품 등 세부품목의 미국향 수출 역성장이 對美 기계설비 수출 감소세를 견인
 - * 2022년 품목별 對美 수출액/증가율: 자동데이터처리기계(450억 달러, △7.7%), PC 부품(59억 달러, △2.3%)

- 지난해 중국의 對美 가구/침구 수출액은 12% 줄어든 346억 달러
 - 금속 재질 가구, 목재 프레임 의자, 목재가구 등 세부품목의 對美 수출은 각각 전년 대비 6.4%, 25.1%, 14.6% 감소

- 對美 플라스틱 수출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273억 달러
 - 기타 플라스틱 제품(62억 달러), 플라스틱 바닥 깔개(30억 달러)가 각각 1.6%, 13.3% 감소한 데 반해 주방용 플라스틱 제품(37억 달러)는 14.8% 증가

□ 2022년 중국의 미국향 담배 수출이 이례적으로 급증

- 2022년 對美 담배 수출이 6,575배 급증하며 미국은 중국의 1위 담배 수출대상국으로 부상
 - 코로나 이전 중국의 對美 담배 수출은 1,200~1,400만 달러 수준
 - 2020년 378만 달러, 2021년 36만 달러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4억 달러로 급증

3. 중국의 對美 수입

□ 미국산 대두 수입이 견조세를 유지하며 對美 수입 감소폭 완화

- 2022년 중국의 미국산 대두(콩)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90억 달러
 - － 2021년 컨트롤러 반도체를 제치고 對美 수입 1위 품목으로 부상한 후 2년째 1위 유지
 - * 2022년 중국 전체 對美 수입에서의 대두(콩) 비중 10.7%
- 같은 해 중국의 미국산 수수, 사료용 식물 수입은 두자릿수 증가세
 - － 2022년 미국산 수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7% 증가한 24억 달러로 2020년의 2.3배, 미중 상호관세 부과 전인 2017년의 2.5배 수준
 - － 지난해 중국의 對美 사료용 식물 수입(금액 기준)이 전년 대비 33.8% 증가
- 한편 중국의 미국산 곡물, 특히 옥수수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
 - － 지난해 중국의 對美 곡물 수입액과 수입물량은 각각 7%, 25% 감소
 - － 특히 중국의 전체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 대비 774만 톤 줄었는데 이중 미국산의 감소폭이 약 500만 톤에 달함

<중국 對美 수입 10대 품목(HS 2단위)>

순위	품목	對美 수입(백만 달러)			전체 對美 수입에서의 비중 %			증감률 (‘22/’21)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對美 수입	135,038	179,466	177,653	100.0	100.0	100.0	△1.0
1	대두(콩), 종자 등	11,414	17,773	20,018	8.5	9.9	11.3	12.6
2	기계설비 및 부품	16,828	19,543	19,654	12.5	10.9	11.1	0.6
3	광물성 연료, 광물유	9,923	21,482	19,037	7.3	12.0	10.7	△11.4
4	전기기기 및 부품	21,065	22,493	18,299	15.6	12.5	10.3	△18.7
5	광학/의료기기 및 부품	11,797	12,863	13,187	8.7	7.2	7.4	2.5
6	자동차 및 부품	10,888	13,856	11,780	8.1	7.7	6.6	△15.0
7	곡물	2,446	8,536	7,936	1.8	4.8	4.5	△7.0
8	플라스틱	6,510	7,399	7,797	4.8	4.1	4.4	5.4
9	의료용품	4,936	6,247	6,093	3.7	3.5	3.4	△2.5
10	유기화학제품	3,177	4,020	5,742	2.4	2.2	3.2	42.9

자료 : Global Trade Atlas

□ 對美 기계설비, 전기기기, 자동차 수입 둔화

- 2022년 중국의 미국산 기계설비 수입은 0.6% 증가한 데 그쳤고 전기기기 수입은 18.7% 큰 폭으로 감소
 - 對美 기계설비 수입액은 코로나19 처음 발생한 2020년 전년 대비 5.4억 달러 감소했다가 2021년 중국의 빠른 경기회복세로 16.1% 급증
 - 이와 대조적으로 對美 전기기기 수입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부터 한 자릿수의 저조한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내·외수 부진으로 두 자릿수 감소폭 기록
 - 2022년 중국의 對美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18억 달러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용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차량용 기어박스 등 품목의 對美 수출은 지난해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
 - 중국 국산 완성차가 빠르게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을 확장한 것이 주된 요인
- * 중국 승용차시장 점유율: 국산 ('21) 44.5%→ ('22) 49.9%, 미국산 ('21) 10.2%→ ('22) 9.4%

<중국 對美 자동차 및 부품 수입동향 >

품목		對美 수입(백만 달러)			증감률(%)
HS 코드	품목명	2020년	2021년	2022년	'22/'21
870323	승용차(가솔린, ~3000cc)	7,299	9,838	8,497	△ 13.6
87036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129	639	433	△ 32.2
870324	승용차(가솔린, 3000cc 이상)	414	517	392	△ 24.2
870840	차량용 기어박스	626	692	595	△ 14.0

자료 : Global Trade Atlas

□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량 동반 감소

- 2022년 중국 對美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량 각각 전년 대비 31.2%, 77.1% 감소한 789만 톤, 212만 톤

- 내외수 부진으로 중국 원유,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요인
 - * 중국 국내 원유 가공량과 가스 소비량 각각 전년 대비 3.4%, 1.3% 감소로 첫 동반 감소
-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중국 탄소중립 관련 정책, 국내 석유가스 생산능력 확대 등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미국산 유기화학 제품 수입 40% 이상 증가하며 中 수입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 지난해 중국 유기화학 제품 수입이 전년 대비 3.3% 감소한 반면, 對美 수입은 42.9%의 높은 신장세 기록
 - 미국의 중국 유기화학 제품 수입시장 점유율이 2021년의 6.7%에서 2022년 9.9%로 확대되면서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올랐음
 - * 1위는 한국으로 전년 대비 0.03% 증가한 116억 달러, 수입시장점유율 20% 차지

4. 품목별 對美 수출입 호부진 및 특이동향 분석

- (배터리) 가격 폭등으로 對美 수출금액은 급증했으나 수출물량은 감소세
- 지난해 對美 수출 중 최대 증가세를 기록한 전기기기(HS 85)는 리튬이온배터리로 전년 대비 103.4% 급증, 수출액(101억 2,292만 달러) 100억 달러 돌파
 - 2020년 미국향 리튬이온배터리 수출액은 25억 달러로, 2년 만에 4배 수준으로 확대
 - 작년 중국 리튬이온배터리 수출 증가율은 79.1%로 미국향 수출이 중국 평균 수출 증가율은 웃돌고 있는 상황
 - 동 기간 중국의 對美 배터리 부품 수출 증가율 역시 161.8%로 평균치(75.2%)의 2배 이상 증가

<중국 對美 배터리 관련 품목 수출동향 >

품목		2022년 對美 수출(백만 달러/%)			中 수출 증감률(%)
HS 코드	품목명	수출금액	증감률('22/'21)	中 수출시장 점유율	('22/'21)
850760	리튬이온배터리	10,123	103.4	20.0	79.1
850790	배터리 부품	456	161.9	26.7	75.2

자료 : Global Trade Atlas

- 그러나 배터리 수출물량을 살펴보면 2022년 중국 전체 배터리 수출량이 전년 대비 10.4%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對美 수출은 24.5% 감소
 - 리튬 등 핵심소재 가격 폭등에 의한 가격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사실상 미국의 對中 배터리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

□ (기계설비) 글로벌 경기침체로 전통 강세품목인 기계부품 對美 수출 감소

- 2022년 자동데이터처리기계(노트북), PC 부품 등 주요 對美 수출 품목 역성장
 - * 2022년 품목별 對美 수출액/증가율: 자동데이터처리기계(450억 달러, △7.7%), PC 부품(59억 달러, △2.3%)
 - 특히 자동데이터처리기계는 중국의 1위 對美 수출 품목(HS 6단위 기준)으로 중국의 對美 기계설비 수출 및 전체 對美 수출에 영향을 미침

<중국 對美 기계설비 품목 수출동향 >

품목		2022년 對美 수출(백만 달러/%)			中 수출 증감률(%)
HS 코드	품목명	수출금액	증감률('22/'21)	中 수출시장 점유율	('22/'21)
847130	자동데이터처리기계	45,016	△7.7	35.2	△8.1
847330	PC부품	5,782	△2.3	17.0	△5.4

자료 : Global Trade Atlas

□ (반도체) 미국의 수출통제와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이 복합적으로 작용,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및 제조용 설비의 수입 감소

- 2022년 중국의 집적회로, 반도체 제조용 설비 對美 수입이 각각 22.6%, 19.5% 큰 폭으로 감소
 -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으로 지난해 중국의 집적회로 수입이 4.1% 감소한 가운데 주요 수입대상국 중 미국이 최대 감소폭 기록
 - 특히 對美 수입 2위 품목인 컨트롤러 반도체는 전년 대비 27.6% 줄며 수입액(92억 달러)이 2019년 이후 3년 만에 100억 달러 하회

- 한편, 2022년 중국 반도체 제조용 설비 수입 상위 3개국(일, 미, 네덜란드)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말레이시아産 수입은 164.3% 증가

* 2022년 中 반도체 제조용 설비 수입 증감률: 일본 △13.6%, 미국 19.5%, 네덜란드 △20.7%, 한국 △30.7%, 말레이시아 +164.3%, 대만 +21.7%, 호주 +16.1%, 독일 △42%

<중국 對美 반도체 관련 품목 수입동향 >

품목		2022년 對美 수입(백만 달러/%)			中 수입 증감률(%)
HS 코드	품목명	수입금액	증감률('22/'21)	中 수입시장 점유율	('22/'21)
8542	집적회로	12,182	△22.6	2.9	△4.2
854231	컨트롤러 반도체	9,246	△27.6	4.5	0.9
848620	반도체 제조용 설비	2,965	△19.5	15.9	△11.7

자료 : Global Trade Atlas

□ (석유화학) 미국산 석유제품·화학제품 수입은 높은 신장세

- 지난해 미국산 프로판*, 석유 코크스 등 석유제품의 수입액 두 자릿수 성장
 - * 기저귀, 와이퍼, 흡수제용 부직포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의 원료
 - 2022년 중국의 對美 프로판 수입액은 전년 대비 30.8% 증가한 67억 달러, 석유 코크스 수입은 77.7% 증가한 18억 달러
 - 수입물량 기준으로 미국산 프로판 수입량은 10% 증가한 851만 톤, 석유 코크스 수입은 6.3% 증가한 627만 톤으로 각각 중국 수입시장에서 40% 이상 비중 유지
- 2022년 유기화학 제품 중 중국의 對美 수입 1위인 비환식 탄화수소 수입액은 전년 대비 93.3% 증가하며 20억 달러 돌파
 - 동 미국산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22년 대비 1.8%p,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29%p, 미중 상호 관세 부과전 2017년 대비 46%p 확대
 - 이외 니트릴 관능 화합물, 에틸렌글로콜 등 화학제품의 對美 수입도 안정적 증가세 유지 중

<중국 對美 유기화학제품 수입동향 >

품목		對美 수입 (백만 달러)	증감률(%)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HS 코드	품목명	2022년	'22년/'21년	2017년	2022년
290110	비환식 탄화수소	2,029	93.3	41.3	97.2
292690	니트릴 관능 화합물	782	53.9	71.2	76.2
290531	에틸렌글로콜	449	30.9	2.0	9.8
293339	피리딘고리 구조를 가지는 헤테로고리 화합물	400	50.3	49.0	48.7

자료 : Global Trade Atlas

5. 시사점

□ 미중 양국, 경쟁 속에서도 긴밀한 상호 협력 유지

-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맞서 중국이 기술 자립, 국산화를 제고에 집중하며 첨단기술, 기계설비 등 분야에서 디커플링 양상
- 한편, 중국은 글로벌 기업의 주요 생산거점이자 판매시장으로, 미중 양국은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유지
 - 미중 교역을 살펴보면 2018년 미중 간 상호관세 부과 이래 디커플링 계속, 첨단기술 분야 경쟁 심화 등을 보이고 있지만 상호 간 무역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실정

□ 향후 미중 관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미중 간 경쟁으로 글로벌 협력관계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분절화 등에 대비할 필요. 끝.